

국제학술대회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재조명



2021. 6. 17.(목) ~ 2021. 6. 18.(금)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대강당

● 1일차 : 2021. 6. 17.(목)

시간	프로그램	
10:30~10:45	15'	접수, 등록
10:45~11:00	15'	개 회 사 유재은(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장) 축 사 지병목(국립문화재연구소장), 김권구(한국청동기학회장) 기념촬영
기조강연 11:00~11:40	40'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문화의 흐름과 특징, 그리고 쟁점 _ 김승욱(전북대학교)
11:40~13:00	80'	<오찬>
1부 영산강유역권의 청동기시대 문화		진행 : 오현덕(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토론 : 윤호필(상주박물관)
발표 1 13:00~13:30	30'	영산강유역권 청동기시대 문화 _ 김규정(전북문화재연구원)
발표 2 13:30~14:00	30'	영산강유역권 청동기시대 주거의 분포와 양상 _ 이재연(전라남도문화재단 전남문화재연구소)
발표 3 14:00~14:30	30'	영산강유역권 지식묘의 특징과 지역성 _ 이동곤(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14:30~14:40	10'	<휴식>
2부 만경강유역권의 청동기시대 문화		진행 : 소재윤(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토론 : 천선행(전라문화유산연구원)
발표 4 14:40~15:10	30'	만경강유역권 청동기시대 문화 _ 이종철(전북대학교박물관)
발표 5 15:10~15:40	30'	만경강유역권 청동기시대 주거의 성격과 특징 _ 정다운(완주군청)
발표 6 15:40~16:10	30'	만경강유역권 청동기시대 무덤의 현황과 특징 _ 송아름(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6:10~16:20	10'	<휴식>
3부 섬진강·탐진강유역권의 청동기시대 문화		진행 : 소재윤(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토론 : 이동희(인제대학교)
발표 7 16:20~16:50	30'	섬진강·탐진강유역권 청동기문화의 전개과정 _ 황재훈(충남대학교)
발표 8 16:50~17:20	30'	섬진강·탐진강유역권 청동기시대 주거 양상 _ 김진환(해원문화재연구원)
발표 9 17:20~17:50	30'	섬진강·탐진강유역권 지식묘의 특징과 지역성 _ 강동석(국립문화재연구소)

● 2일차 : 2021. 6. 18.(금)

4부 호남지역 초기철기시대문화		진행 : 박영구(강릉원주대학교) 토론 : 조진선 (전남대학교)
발표 10 10:00~10:30	30'	호남지역 초기철기시대 문화 _ 한수영(호남문화재연구원)
발표 11 10:30~11:00	30'	전남지역 초기철기시대 주거와 무덤 _ 김진영(고대문화재연구원)
발표 12 11:00~11:30	30'	전북지역 초기철기시대 유적의 특징과 지역성 _ 정수옥(문화재청)
11:30~13:00	60'	<오찬>
5부 중국과 일본의 청동기시대 농경과 호남지역		진행 : 박영구(강릉원주대학교) 토론 : 김권구(계명대학교)
발표 13 13:00~13:30	30'	중국 고고학을 통한 벼 재배의 기원과 중국 문명에 대한 인식 변화 Zheng Yun Fei 鄭雲飛(中國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 ※ 발표 영상 상영
발표 14 13:30~14:00	30'	일본과 호남지역 청동기문화 Miyazato Osamu 宮里修(日本高知大学) ※ 발표 영상 상영
14:00~14:10	10'	<휴식>
종합토론 14:10~16:20	130'	좌장 이청규 토론 윤호필, 천선행, 이동희, 조진선, 김권구
16:20~16:30		폐 회 사 이은석(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장) 기념촬영

Contents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한국청동기학회 공동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재조명』 국제학술대회

1 일 차

■ 기초강연

1.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문화의 흐름과 특징, 그리고 쟁점 1
김승욱(전북대학교)

■ 1부 : 영산강유역권의 청동기시대 문화

2. 영산강유역권 청동기시대 문화 23
김규정(전북문화재연구원)
3. 영산강유역권 청동기시대 주거의 분포와 양상 49
이재연(전라남도문화재단 전남문화재연구소)
4. 영산강유역권 지식묘의 특징과 지역성 79
이동곤(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 2부 : 만경강유역권의 청동기시대 문화

5. 만경강유역권 청동기시대 문화 109
이종철(전북대학교박물관)
6. 만경강유역권 청동기시대 주거의 성격과 특징 137
정다운(완주군청)
7. 만경강유역권 청동기시대 무덤의 현황과 특징 165
송아름(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 3부 : 섬진강·탐진강유역권의 청동기시대 문화

8. 섬진강-탐진강유역 청동기문화의 전개과정 197
황재훈(충남대학교)
9. 섬진강·탐진강유역의 청동기시대 주거 양상 223
김진환(해원문화재연구원)
10. 섬진강·탐진강유역권 지식묘의 특징과 지역성 247
강동석(국립문화재연구소)

2 일 차

■ 4부 : 호남지역 초기철기시대문화

11. 호남지역 초기철기시대 문화 275
한수영(호남문화재연구원)
12. 전남지역 초기철기시대 주거와 무덤 299
김진영(고대문화재연구원)
13. 전북지역 초기철기시대 유적의 특징과 지역성 323
정수옥(문화재청)

■ 5부 : 중국과 일본의 청동기시대 농경과 호남지역

14. 중국 고고학을 통한 벼 재배의 기원과 중국 문명에 대한 인식 변화 349
Zheng Yun Fei 鄭雲飛 (中國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 ※ 발표 영상 상영
15. 일본과 호남지역 청동기문화 373
Miyazato Osamu 宮里修 (日本高知大学) ※ 발표 영상 상영

- 토론문 393

01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문화의 흐름과 특징, 그리고 쟁점

김 승 옥
전북대학교

- I. 머리말
- II. 유적의 분포와 지역적 전개과정
- III. 문화의 변천과 성격
- IV. 문화의 특징과 쟁점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문화의 흐름과 특징, 그리고 쟁점

김 승 옥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I. 머리말

한반도의 서남단에 위치한 호남지역은 서부 평야지대와 동부 산간지대로 대별되는데, 이는 호남 정맥의 산줄기가 東高西低의 지형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서부의 만경강·동진강·영산강유역권에는 넓은 충적대지와 낮은 구릉들이 발달되어 있으며 충적지는 서해와 남해안으로 연결된다. 이에 비해 높은 산지로 이루어진 동부에서는 금강 상류와 섬진강·보성강이 흐르고 주변에 상대적으로 좁은 분지가 형성되어 있다.

호남지역의 이러한 지형과 수계망의 특징은 선사시대 이래 다양한 문화의 형성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바다와 강, 평야지대로 이루어진 서부지역은 육로와 해로를 통해 문화의 이주와 접촉, 교류가 이루어지는 개방형의 환경이지만 동부지역은 산맥의 고개나 강줄기를 따라 문화가 선형적으로 형성되는 특징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지정학적 특징으로 호남지역의 청동기시대 중기에는 송국리형문화가 서부 일대에 그 꽃을 피우지만, 동부에서는 지석묘문화가 상대적으로 번창하게 된다. 또한 전북 동부의 금강 상류 일대는 전남의 영산강과 섬진강, 영남의 남강유역을 이어주는 문화적 길목과 접이지대로서의 성격을 보여주며(김승옥 2006b), 남해안 일대의 문화는 바다 건너 제주도과 일본 고대 문화의 형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글은 이처럼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문화의 흐름과 특징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청동기시대를 조기-전기-중기-후기로 구분하고, 각 획기에 따라 문화의 흐름과 특징을 짚어본다.

II. 유적의 분포와 지역적 전개과정

1. 조기와 전기

우리나라의 청동기시대의 시작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상한 연대를 기원전 15세기 전후로 보는 데에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 시기부터 중국 동북지방과 한반도

에서 청동기시대의 다양한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는데, 호남지역에서 확인된 이 시기¹⁾의 유적으로는 전주 동산동과 순창 원촌의 취락유적이 유일하며²⁾ 분묘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발견된 바 없다.

기원전 12세기경의 전기에 이르면 유적의 수가 증가하고 분포지역 역시 넓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이 시기에 들어서면 호남지역에서는 2015년 기준으로 40여개 이상의 취락유적(주거지 총 수 120기 이상)과 10여개 정도의 분묘유적이 발견되었다(정다운 2015). 물론 발견되지 않은 취락이나 분묘 유적을 감안하면 유적의 수는 향후 계속 증가할 것이다.

우리나라 청동기시대의 문화는 가락동·역삼동·혼암리유형으로 대별되기도 하는데, 호남에서는 이러한 문화유형이 모두 유행하였으며 초기에 등장한 미사리유형의 주거지가 전기에도 축조된다. 이러한 전기의 취락들은 만경강·동진강·영산강·섬진강(남해안 포함)유역권에서 집중 발견되고 있다(그림 1). 따라서 호남의 전기 문화는 전북 동부의 금강 상류를 제외한 지역에서 확인되었으며, 발견된 취락들은 주요 물줄기를 따라 확산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호남지역의 전기 취락은 만경강 일대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며 이후 서해안을 따라 영산강과 섬진강유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김승욱 2017; 정다운 2015; 홍밖음 2013). 또한 만경강 일대의 전기 문화는 미사리→가락동→역삼동유형의 순서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문화들은 상호간에 활발한 문화접촉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김승욱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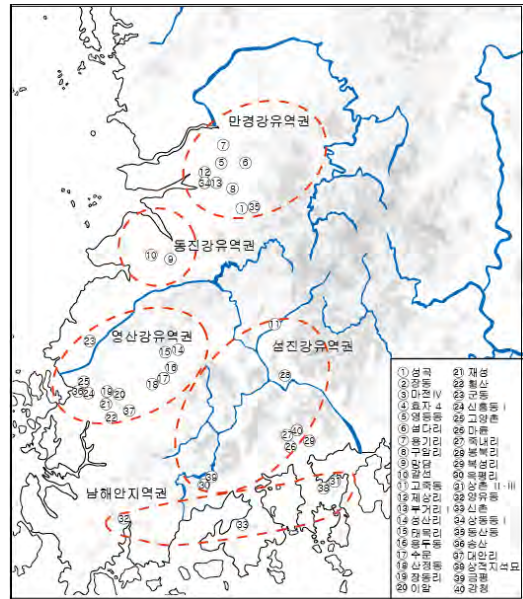


그림 1. 호남지역 전기 취락의 분포 (정다운 2015, 재편집)

호남지역에서 청동기시대 분묘가 축조되기 시작한 시점은 남한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기원전 10세기경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발견 유적의 수 역시 많지 않다((김승욱 2015a, b; 배진성 2011). 지석묘의 경우 동부 일대에서는 이 시기에 축조된 유적이 일부 발견되지만 서부 일대에서는 아직까지 발굴된 유적에서 이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그림 2). 그림에도 동부의 예나 서부 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의 분포(그림 1) 등을 볼 때 서부지역 지석묘도 일부는 기원전 10세기경부터 축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호남의 서부 일대에서 전기에 축조된 묘제로는 먼저 토광묘를 꼽을 수 있다. 나주 장동유적에서 토광묘 1기가 발견되었는데, 내부에서 전기의 특징적 유물이라 할 수 있는 삼각만입석촉과 적색마연호가 출토되었다. 향후 조사가 진전되면 이와 같은 토광묘가 발견될 가능성이 농후한데, 왜냐하면

1) 이 글에서는 호남지역 청동기시대의 시작을 기원전 15세기로 비정하였지만 이 연대는 향후 수정될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순천 마륜과 광주 노대동에서는 신석기시대 말기의 이중구연토기가 발견되고, 이러한 이중구연토기가 청동기시대의 각목돌대문토기와 시간상 공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안승모 2011)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2) 담양 태목리 1호 주거지에서도 각목돌대문토기가 발견되지만 절상돌대문토기와 공반되고 내부에서 초석시설 등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이 주거지는 전기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서부 일대에서 전기 취락이 유행했고 상술한 바와 같이 전기 문화는 전북 서부를 거쳐 전남지역으로 파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기에 축조된 또 다른 묘제로는 옹관묘가 있다. 직립구연의 옹관묘가 익산 석천리와 울촌리에서 발견된 바 있고, 최근에는 완주 운교, 전주 반응리·동산동, 정읍 상평동유적 등 그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그림 3). 직립구연의 옹형토기는 만경강 일대의 익산 영등동 I-3호처럼 전기 취락에서도 일부 발견되지만 중기 취락에서는 거의 출토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기 후반에 옹관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옹관이 송국리형 취락이나 묘제와 동일 지점에서 발견되는 점으로 보아 중기 이른 시기에 이루어진 전기 최말기문화와의 접촉 결과일 수도 있다. 또한 전기의 옹형토기가 傳世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직립구연의 옹관이 중기 전반 경에 축조되었을 개연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향후 이에 대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

2. 중기

기원전 9세기경부터 시작되는 호남지역의 중기 사회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폭발적인 인구증가와 본격적인 농경사회로의 진입을 보여준다. 취락과 분묘의 폭발적인 증가가 이를 대변한다(김승욱 2006a; 이종철 2015). 여기서는 서부 평야지대와 동부 산악지대로 대별하여 이 시기의 대표적 묘제인 송국리형 무덤(석관묘·석개토광묘·옹관묘)과 지석묘의 분포 및 상호관계를 논하고 필요한 경우 취락을 언급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전남지역은 지석묘의 핵심 분포지대로서 우리나라 모든 지석묘의 60%정도가 이곳에서 발견된다(이동희 2017). 이에 비해 전북지역 지석묘는 3,000여기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지석묘 전체의 9% 정도에 해당한다. 이마저도 거의 대부분 전북 서부의 고창 일대와 동부 산간지대에서 발견되고 있다(김승욱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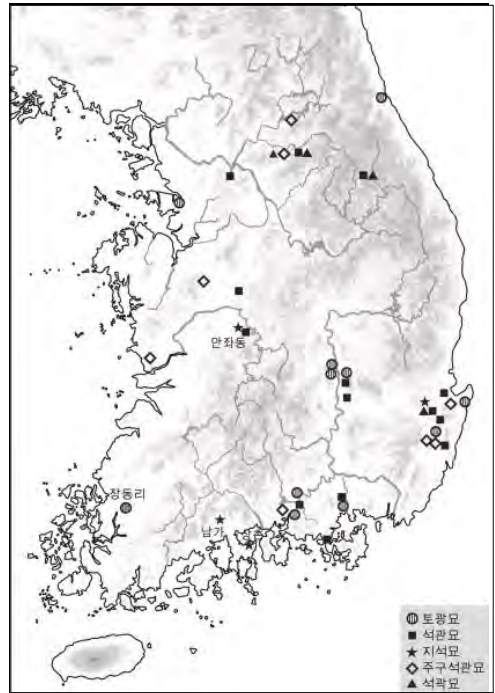


그림 2. 남한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묘제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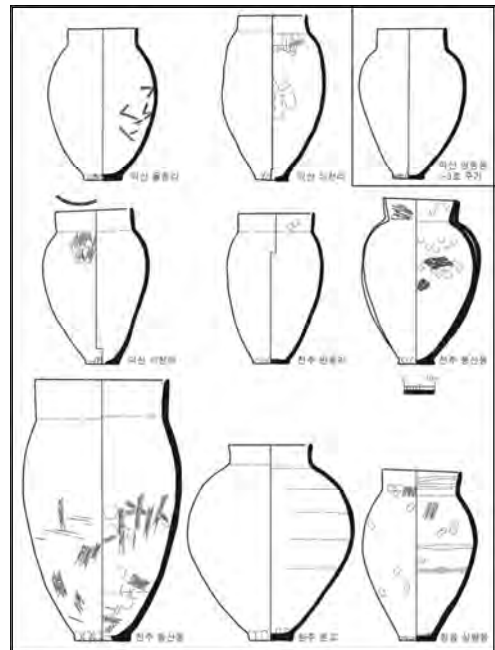


그림 3. 만경강 일대 전기 옹관과 주거지 출토 옹형토기

이와 같이 호남지역은 전 세계 지석묘문화의 메카라 할 수 있지만 고창을 제외한 전북 서해안과 서부 일대에서는 소수의 지석묘가 발견되고 있다(그림 4). 발견된 것들도 대부분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대규모의 군집 현상도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전북 서부 일대에서 활발하게 발견되는 분묘가 있는데, 송국리형묘제가 그것이다. 분포와 밀도로 볼 때 송국리형묘제의 핵심 분포권은 금강 중하류이고, 다음으로 높은 곳이 바로 전북 서부 일대라 할 수 있어 전북 서부는 송국리형문화의 또 다른 중요한 터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송국리형 주거지의 분포와 밀도에서도 입증된다(김승옥 2006b; 이종철 2015).

송국리형묘제는 광주·전남지역에서도 발견되지만 전북 서부 일대에 비해 분포와 밀도가 떨어져 주로 함평과 나주 등 서해안에 인접한 곳에서 확인되고 있다(그림 4). 영산강과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도 극소수가 발견되고 있다. 전북 서부와 유사한 해안과 평야지대임에도 왜 전남지역에서는 송국리형묘제가 상대적으로 적게 발견되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각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지석묘가 발달한 고창 일대에 송국리형묘제가 상대적으로 적게 확인되는 것처럼 영산강과 남해안 일대 지석묘의 유행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송국리형문화가 유입될 당시 이미 전남의 서부 일대에는 지석묘문화가 유행하고 있었고, 이는 외부 문화의 이주와 정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공산이 크다. 이러한 가능성은 송국리형묘제와 지석묘가 동일 유적에서 함께 발견되는 예가 드물다는 점에서 뒷받침된다. 전남 동부 산악지대 일대의 지석묘는 서부 평야지대에 비해 그 수와 밀도, 특히 군집도에서 압도적인데(이영문 2003), 이 지역에서도 송국리형분묘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 점 역시 전남 서부지역에서 송국리형문화가 상대적으로 덜 확산된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서부지역 청동기시대 묘제의 지역적 차이는 자연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호남지역 지석묘의 주요 분포지는 전북과 전남 모두 산악지형이 발달된 동부지역이다. 서부 지역에서 최대의 밀집도와 군집성을 자랑하는 고창 죽림리 일대 지석묘의 주요 분포지는 산악지형이 발달한 선운산 일대이다. 전남의 서부 일대 역시 지석묘가 활발하게 발견되는 지역은 주변에 상대적으로 높은 산지를 끼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서부지역에서 지석묘가 활발하게 발견되는 지역은 공히 산악지대인 반면, 송국리형묘제가 발달한 곳은 낮은 구릉이 발달한 저평한 평야지대라고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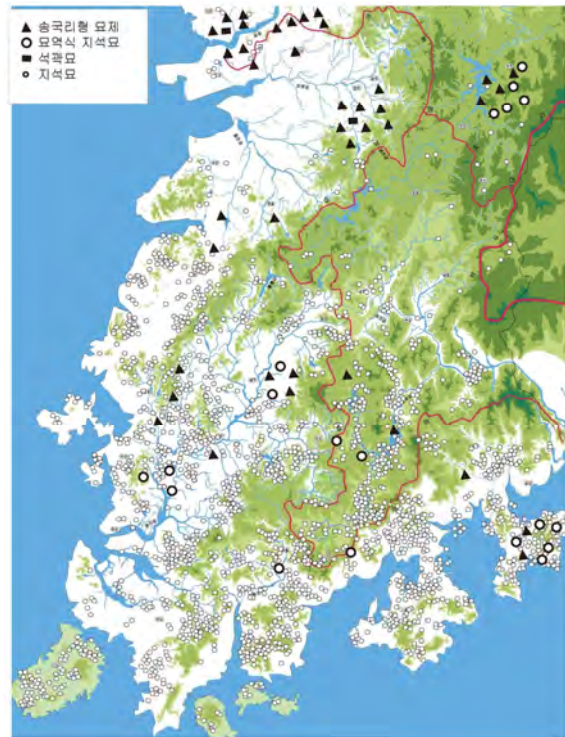


그림 4. 호남지역 송국리형묘제와 지석묘의 분포

이러한 두 묘제의 상반된 분포상의 차이는 수 톤에서 수 십 톤에 이르는 지식묘의 상석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도로망과 운송수단이 발달하지 못한 수천 년 전의 당시 사회에서 거대한 상석을 채석할 수 있는 암반이 주변에 분포하지 않는다면 지식묘의 축조는 상당히 어려운 공사였을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지식묘문화 전통의 당시 주민들은 산악지형이 발달한 곳을 선호하였을 것이며, 암석 채석이 용이하지 않은 서부 평야지대는 거주 밀도가 떨어지게 된다. 이에 비해 거대한 암석을 상대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은 석관묘·석개토광묘·옹관묘를 축조하는 송국리형문화집단은 상대적으로 인간의 점유가 적었던 서부 평야지대에 삶의 터전을 잡았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송국리형묘제와 지식묘 분포상의 차이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생업경제의 방식과 주요 식량자원의 차이이다. 청동기시대의 구체적인 생업경제를 알기는 어렵지만 현재까지의 유적과 유물로 볼 때 이 시기 호남지역은 본격적인 농경사회로 발전하였음임에 틀림이 없다.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평야지대는 논농사에 유리하고 산악지대는 밭농사와 화전농경, 다양한 야생자원의 획득에 유리하다. 이 점은 호남지역의 청동기시대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예를 들어 송국리형묘제가 발달한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논농사의 비중이 높고 지식묘문화권에서는 밭농사와 화전농경, 야생자원에 대한 비중이 높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 증거가 많지는 않지만 전북 평야지대와 유사한 논산 마전리에서 당시의 논이 발견되었고, 진안 여의곡에서 밭이 발견되었다는 점도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

송국리형묘제는 이와 같이 서부 평야지대에서 활발하게 발견되지만 평야지대에서도 광주 원두유적과 같은 극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낮은 구릉의 정상부나 사면부에 축조된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이는 지식묘가 구릉 외에도 산기슭이나 고갯마루, 강변의 충적대지 등 다양한 곳에서 발견되는 점과 대비되는 특징이다. 또한 지식묘는 강의 방향을 따라 열상으로 배치되거나 구릉이나 산기슭에서도 일정한 방향을 보이지만 송국리형묘제는 특정한 방향이나 열을 보이지 않고 3기 내외의 분묘가 소군집을 이루어 분포한다.

이러한 송국리형묘제의 공간배치는 주거지의 배치와 일맥상통한다. 송국리형문화의 경관을 살펴 보면 주거지와 분묘는 대부분 동일 구릉이나 인근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발견되며, 3기 내외가 소군집을 이루어 분포한다. 예를 들어 전주 마전유적(그림 5)에서는 주거지와 분묘, 수혈군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위치하고 있으며 3기 내외가 군집하여 발견된다. 이러한 송국리형 묘제와 주거지의 공간적 분포는 전주 동산동이나 함평 용산리, 고양촌 등 많은 유적에서 확인된다. 예나 지금이나 공간은 친족관계를 반영한다. 송국리형문화의 이러한 공간배치 역시 취락 내에서 친족적으로 가까운 자들이 함께 모여 살았고(주거군) 이러한 주거군이 몇 개 모여 하나의 마을을 형성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인근에 위치한 분묘 역시 이러한 친족관계에 따라 공간적으로 조성된다.

마지막으로 전라도 서부 일대의 송국리형묘제의 기원과 확산과정을 살펴보자. 우리나라에서 송국리형묘제는 물론이고 취락이 가장 밀집분포하고 있는 지역은 금강중하류 일대이고 이곳의 송국리형문화가 주변 지역으로 점차 확산되기 시작한다(김승욱 2006b). 호남지역 서부의 경우에도 송국리형묘제는 전북의 만경강 일대에서 먼저 유행하고, 이후 서해안을 따라 동진강과 영산강, 남해안일대로 점차 남하하게 된다. 이러한 송국리형묘제의 확산과 전파경로는 송국리형묘제의 분포와 밀도가 만

경강일대에서 가장 높지만 서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감에 따라 점차 떨어진다는 사실에서 뒷받침된다. 이러한 확산 과정은 송국리형묘제의 조합상에서도 알 수 있는데, 금강중하류와 만경강일대의 전주 여의동, 완주 상운리, 익산 어량리 유적 등에서는 세 묘제가 세트로 확인되지만 동진강이남 일대에서는 세 묘제중의 일부만이 확인된다. 따라서 송국리형묘제가 남하하면서 석개토광묘와 옹관묘의 비중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현지의 토착문화와 만나면서 전형의 송국리형문화가 변화와 융합을 거듭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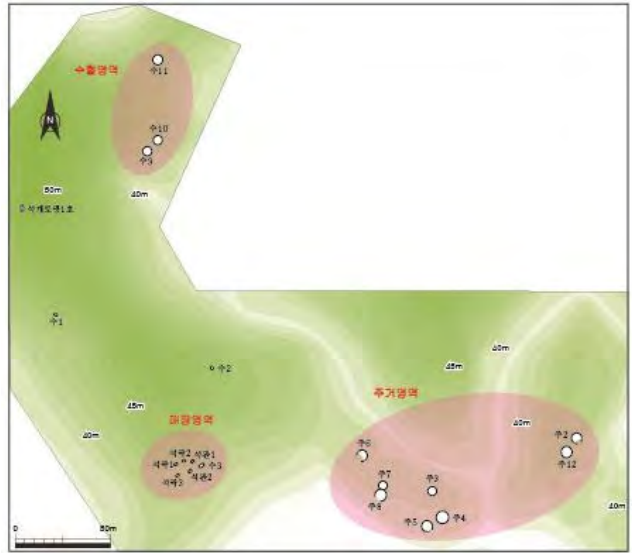


그림 5. 전주 마전유적 III-1구역 유구 모습

이와 같이 서부 일대 중기의 분묘는

크게 송국리형묘제와 지석묘 분포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들 두 문화는 서로 어떻게 만났을까? 서부 일대에서 두 묘제는 혼재하여 발견되는 사례도 있고, 송국리형묘제가 지석묘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친 증거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두 묘제가 만나기전 청동기시대 전기 지석묘의 매장시설은 석곽형이지만 중기 이후에 이르면 석관형도 다수 축조된다. 또한 송국리형묘제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견되는 영산강유역권에서는 석관과 석곽형의 비율이 30.6%와 58.1%이지만 보성강유역권에서는 2.0%와 76.1%로서 거의 대부분 석곽형이다(李榮文 1993). 서부와 동부 지석묘의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지역적 차이일수도 있지만 송국리형묘제인 석관묘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남해안 일대의 장흥 갈두와 신평에서 대규모의 송국리형주거지와 지석묘가 공존하는 양상도 이러한 문화 간의 만남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그림 6, 7). 또한 송국리형문화와 지석묘사회의 접촉은 양자가 지역적 분포를 달리하고 갈등이나 전쟁의 직접 증거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상호간의 갈등이나 대립보다는 자연스러운 공존과 상생의 결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호남지역 동부 산악지대를 살펴보면, 이 지역 일대의 묘제는 지석묘 일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기 후반부터 지석묘가 축조되고 중기 이후에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유행한다. 중기 이후 이 지역에도 송국리형문화가 유입되지만 서부 일대에 비해 유적은 한정된 지역에서 소수가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송국리형묘제는 진안 여의곡·망덕·모곡 등의 금강 상류와 임실 외량(그림 8)과 운정리, 순창 무수리 등 섬진강 상중류에서 한정적으로 발견된다. 또한 진안 여의곡을 제외하면 송국리형묘제 중 석관묘만이 발견된다는 특징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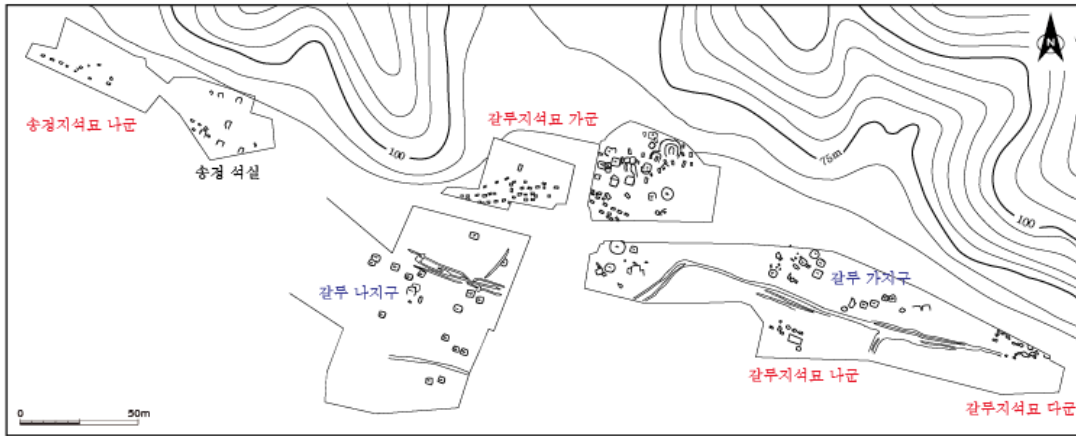


그림 6. 장흥 갈두·송정유적 유구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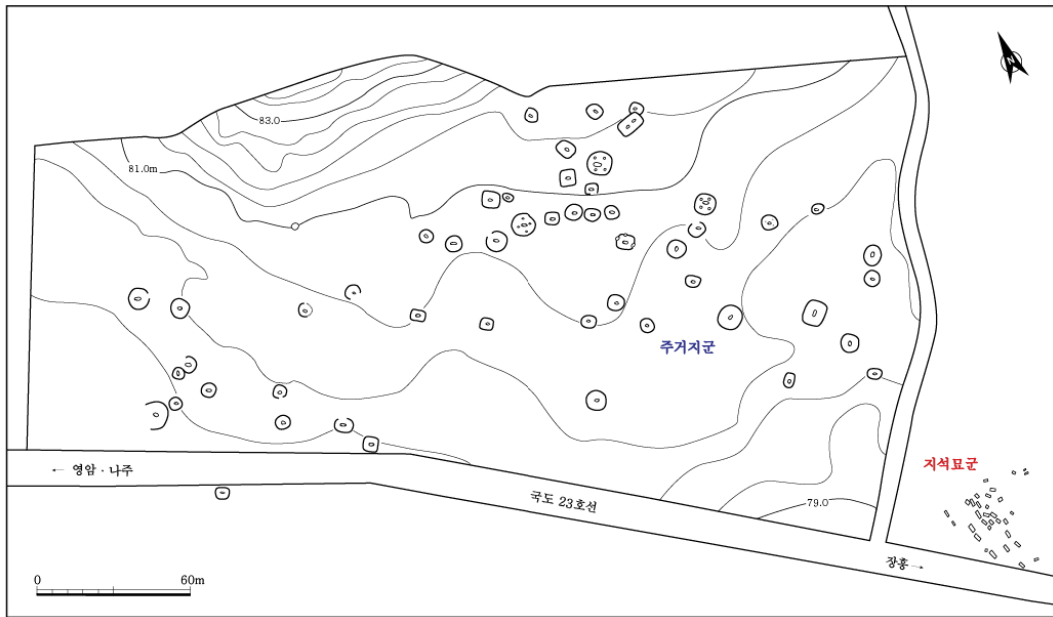


그림 7. 장흥 신평유적 유구 분포도

호남 동부 일대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송국리형묘제는 지석묘와 혼재하거나 지석묘의 외곽에 축조된다는 점에서 서부와 대조를 이룬다. 대표적인 예로 여의곡유적을 들 수 있는데, 이 유적에서는 전기부터 축조된 대규모 지석묘가 금강변을 따라 열상으로 축조되었고, 그 외곽에 석관묘·석개토광묘·옹관묘가 조합을 이루어 발견되었다(그림 9). 이러한 송국리형묘제는 여의곡유적의 최말기인 청동기시대 중기 후반에 축조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김승욱 2003). 인접한 구릉에서는 송국리형취락도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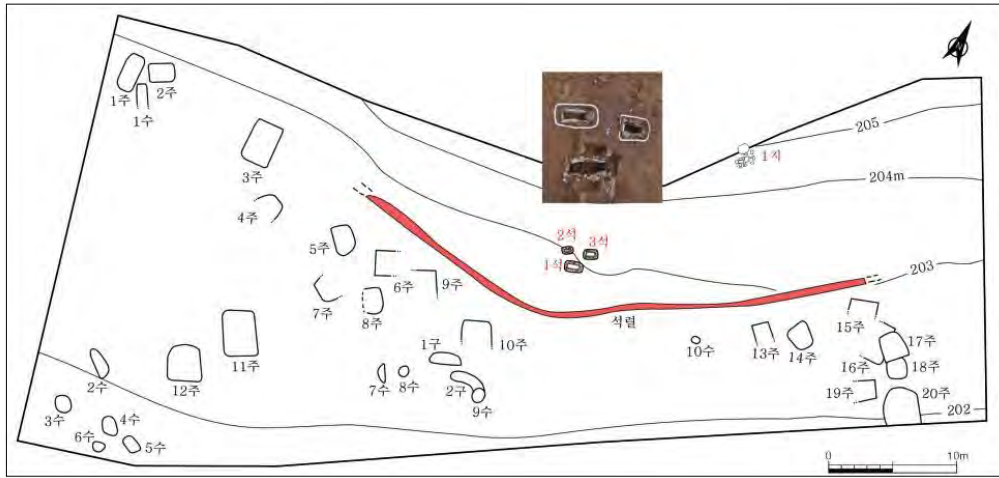


그림 8. 임실 외량2유적 유구 분포도

지석묘문화가 꽃을 피우고 있던 전라도의 동부에도 이처럼 송국리형묘제가 유입되었음은 확실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발견되는 송국리형 취락에서도 입증된다. 그럼에도 송국리형묘제와 지석묘사회 간의 접촉과정과 그 결과는 서부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동부 일대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중기 이후의 송국리형묘제가 선주민 집단인 지석묘사회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 예를 들어 여의곡유적에서는 송국리형묘제가 지석묘 열의 외곽에 축조되었고, 52호와 53호 석관묘는 상부에 방형의 묘역시설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이 지역 묘역식지석묘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추정할 수도 있다(그림 9). 순천 가곡동유적에서도 묘역식지석묘 주위로 석관묘가 배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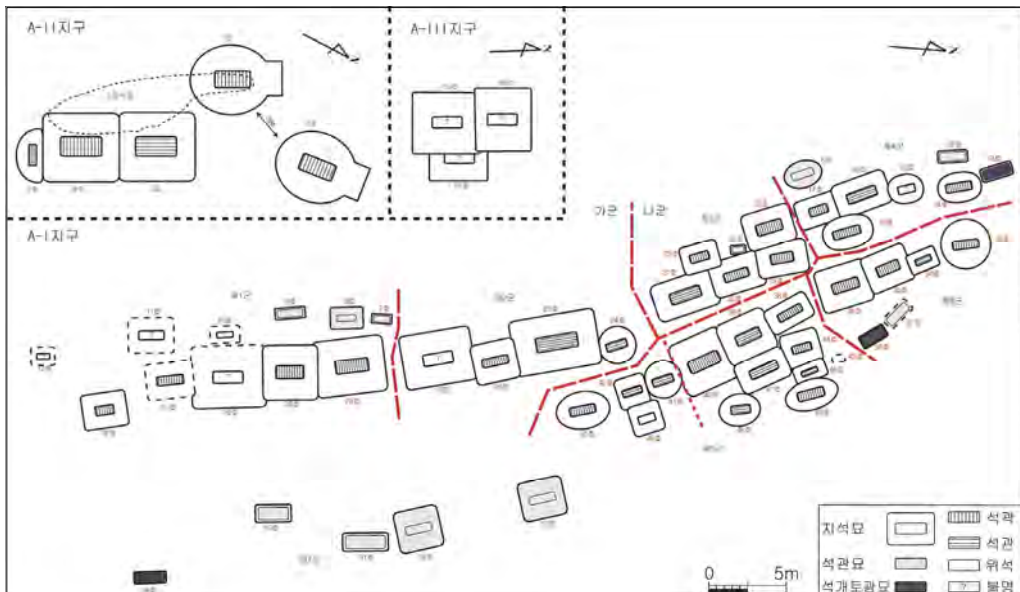


그림 9. 진안 여의곡유적 모식도

지석묘사회와 공존한 송국리형묘제는 지석묘의 형태와 구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 흥미롭다. 예를 들어 지석묘의 하부구조 중에는 이단토광으로 된 깊은 지하에 여러 개의 뚜껑돌을 덮은 형식이 다수 발견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 보성 동촌리 지석묘³⁾를 들 수 있다(그림 10). 지석묘에서 보이는 이러한 하부구조는 지하 이단으로 된 석관묘나 석개토광묘의 하부구조와 별로 차이가 없다. 또한 묘역식지석묘는 송국리형문화권과 일치하는데(김승욱 2007), 원형의 묘역시설은 송국리형 원형 주거지의 평면 형태와 모종의 관련이 있을 개연성이 있다.



그림 10. 보성 동촌리유적 지석묘

서부와 마찬가지로 동부지역 송국리형문화의 확산은 지형과 수계망을 따라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금강 중하류의 송국리형묘제는 금강 상류로 확산되고 이후 섬진강을 거쳐 남해안 일대로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백두대간을 넘어 경상도의 황강과 남강유역권으로 넘어간다. 섬진강의 송국리형묘제는 전북 서부 일대, 특히 만경강과 깊은 관련을 보인다. 즉 송국리형묘제의 분포(그림 4)로 볼 때, 만경강 일대의 송국리형묘제는 섬진강 최상류인 임실을 거쳐 순창 일대로 확산되었던 걸로 이해된다. 섬진강 하류는 금강과 섬진강 상류의 묘제도 유입되지만 서남해안과도 밀접한 교류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묘제의 확산과 정착과정은 취락에서도 흡사한 양상을 보이게 된다(김승욱 2006b; 이종철 2015).

결과적으로 호남지역의 동부 일대는 청동기시대 문화의 교차로이자 정류장이라 정리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문화가 만나 변화와 혁신을 거쳐 새로운 문화로 거듭난 곳이 동부 일대이다. 동부 일대에서는 청동기시대 이른 시기에 지석묘만이 축조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중기 이후부터는 금강 중하류의 송국리형문화와 만나 지석묘+송국리형묘제라는 새로운 장례문화를 건설하게 된다. 동부지역에서 새롭게 탄생한 이와 같은 묘제가 주변지역으로 파급되었음은 물론이다. 예를 들어 진주 내촌리·대촌·옥방2지구 등 남강 일대에서 발견되는 유적에서는 지석묘를 중심으로 다수의 석관묘나 석개토광묘가 공존한다(김승욱 2007). 한마디로 호남의 동부 일대는 다양한 청동기시대 문화의 접미지대이자 동시에 새로운 문화가 탄생한 곳이라 요약할 수 있다.

3. 후기

기원전 5세기경부터 시작되는 청동기시대 후기에 이르면 분묘의 종류와 분포가 급변하게 된다. 물론 이 시기에도 중기에 유행하였던 송국리형문화가 지속되며, 남해안일대에서는 더욱 성행하게 된다(김승욱 2007). 예를 들어 군산 도암리, 전주 효자4, 완주 상운리, 고창 울계리, 광주 수문과 하남동, 장흥 갈두유적에서는 중기의 송국리형주거지가 후기에 축조된다(이종철 2014). 그러나 중국

3) 동촌리 지석묘는 청동기시대 후기에 축조된 것이지만 기술의 편의상 여기에 소개한다.

요령일대의 점토대토기문화가 유입되면서 새로운 분묘 형태라 할 수 있는 적석목관묘, 토광묘, 옹관묘(횡치다옹식)가 유행하게 된다.

호남지역의 점토대토기문화는 어떠한 경로로 유입되었을까?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북방지역의 점토대토기문화는 육로를 통해 우리나라의 북부와 중부지역으로 전파되고, 해로를 통해 금강중하류로 유입된다. 호남지역의 경우 만경강이 주목되는데, 만경강 일대의 밀집된 이 시기의 묘제로 볼 때 호남의 점토대토기문화는 해로를 통해 만경강 일대로 먼저 유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점토대토기문화는 영산강과 남해안일대로 남하하게 된다(김승욱 2016).

만경강 일대 점토대토기문화의 핵심을 정리하면, 1) 지역 연맹체로서의 마한의 시작은 만경강 일대로 볼 수 있으며, 2) 핵심 무대는 만경강 이남의 황방산 일대이고, 3) 성립 시점은 기원전 2세기 전후로 볼 수 있다(김승욱 2020). 만경강 일대 점토대토기문화 단계의 물질문화는 역사전개상 마한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端初인 셈이다.

이러한 외래계의 점토대토기문화와 재지 토착 세력과의 사회적 관계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묘제의 분포로 볼 때 이주민의 정착 초기에 두 문화는 대부분 공간을 달리 하면서 살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점차 두 문화 간의 접촉과 융합현상이 발생하는데, 먼저 재지의 분묘에서 점토대토기문화 요소가 확인되는 경우이다(김승욱 2016). 예를 들어 완주 반교리와 정읍 정토유적의 석개토광묘에서는 원형점토대토기와 흑도장경호가 발견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고창 왕촌리유적 석관묘에서는 흑도장경호가 출토되었는데, 이 석관묘는 일단 굴광에 석관을 안치한 후 2중 개석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송국리형 석관묘의 말기 형태로 판단된다(김승욱 2016). 영산강유역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데, 광주 매월동, 나주 운곡동과 월양리, 영암 장천리와 엄길리 등의 지석묘에서는 세형동검, 검과두식, 두형토기, 점토대토기 등이 확인되었다. 함평 상곡리 석관묘에서는 鏡形銅器 4점이 확인되었는데, 이 유물은 중국 동북지방에서 유래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오강원 2017).

이와는 반대로 점토대토기문화의 유적에서 재지 분묘의 요소가 발견되기도 한다. 가령 완주 신흥과 갈동의 토광묘에서 송국리식의 외반구연옹과 홍도가 확인되었고(송종열 2015), 전주 마전의 구상유구에서도 홍도가 다수 발견되었다. 이외에도 적석목관묘에서 재지 분묘의 속성이라 할 수 있는 이단묘광이나 대형 뚜껑돌이 발견되는데, 전주 여의동과 효자동, 익산 다송리, 화순 대곡리, 함평 초포리유적 등이 이러한 사례에 속한다. 예를 들어 粗紋鏡과 扇形銅斧가 발견된 여의동유적에서는 이단굴광과 대형 뚜껑돌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송국리형묘제인 이단석개토광묘의 구조를 연상하게 한다(한수영 2015).

호남지역의 청동기시대 후기에는 이와 같이 재지와 외래계의 분묘가 공존과 융합을 거듭했던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통합과 재창조의 과정을 거친 호남의 청동기시대 후기 문화는 이후 이 지역 마한문화의 발판으로 작용하게 된다.

Ⅲ. 문화의 변천과 성격

1. 초기: 문화의 태동

남한지역에서 발견되는 청동기시대 초기 취락은 유적당 주거의 수가 대부분 2~3동으로 구성되는데, 호남 역시 이러한 양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호남지역의 초기 사회는 하나의 대형 가옥에 친족적으로 가까운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소위 ‘공동거주형 세대공동체’(김승욱 2006a)로 구성된 소규모의 집단생활을 영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압록강유역을 본향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초기 문화는 충적지 기반의 농경, 구릉과 산지를 이용한 수렵과 채집, 강 연안의 하천어를 복합적으로 이용한 혼합경제체제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천선행 2015). 호남지역의 초기 문화 역시 입지와 유물복합체의 양상으로 보면 이러한 생업경제방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동산동유적에서 발견된 다양한 탄화곡물과 벼의 압흔, 하천어로와 관련된 다량의 어망추, 수렵도구와 야생식물(주로 견과류)과 패류는 이러한 혼합경제방식을 지지하는 증거들이다(김승욱 2017).

2. 전기: 문화의 확산

상술한 바와 같이 호남지역의 전기 문화는 다양한 지역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초기와 여러 측면에서 대조를 이루게 된다. 예를 들어 초기의 취락이 충적대지에 입지하는 반면, 전기에 이르면 주로 낮은 구릉의 정상부를 따라 취락이 건설된다. 또한 초기 주거지는 대부분 대형의 장방형이지만 전기에는 장방형과 함께 세장방형이 유행하게 된다. 전기 후반부에 이르면 지식묘, 옹관묘, 토광묘 등 분묘가 축조되기 시작한다는 점도 초기와 전기의 차이이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주거지와 분묘에서 발견되는 유물도 커다란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기의 생업경제는 초기와 비슷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에도 집약적 수전농경보다는 곡간의 저지대를 이용한 소규모 농경과 함께 수렵과 채집, 하천 어로가 조합된 혼합경제방식을 영위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취락의 입지에서도 확인되는데, 예를 들어 이 시기의 취락은 중기의 송국리형문화 취락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하면서 경사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저지대 수전농경지로의 접근이 불리하다고 한다(허의행·강병권 2004). 물론 다른 지역에서 이 시기에 소규모의 논농사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호남지역에서도 논농사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은 남겨둘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 시기 청동기시대 사회는 어떻게 조직되었을까? 증거는 충분하지 않지만 사회상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는 일부 발견되었다. 지식묘를 예로 들면, 무덤방은 모두 대형 석곽이고 석검이나 석촉을 제외하고 높은 신분을 상징할 수 있는 위세품이 거의 발견되지 않으며 군집을 보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발견된다. 따라서 전기 분묘에 피장된 주인공들은 각각의 친족집단이나 세대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지만 이들 간에 현저한 신분상의 차이가 존재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과적으로 초기 사회는 성과 신분에 따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존재했던 사회로 볼 수 있지만 신분이 세습

되는 계층사회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김승욱 2007). 다시 말해 청동기시대 전기는 불평등의 씨앗을 어느 정도 잉태하고 있지만 그 열매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던 사회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전기 사회에서 개인이나 집단 간의 위계적 관계가 발달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마을과 마을 간에는 교역이나 축제를 통해 상호간에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지식묘의 거대한 상석과 묘역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동력과 기술이 요구됨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노동력은 한 마을내의 구성원으로는 부족하고 여러 마을의 협업(집합적 노동력)을 통해 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 내 여러 마을이 모여 축제와 제사를 지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적도 발견되었는데, 완주 구암리가 이에 해당한다. 이 유적은 만경강 일대에서는 유일하게 해발 76m 높이의 고지성 구릉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기 이후에 속하는 주거지 10기와 환호형의 대형 유구가 발견되었다(그림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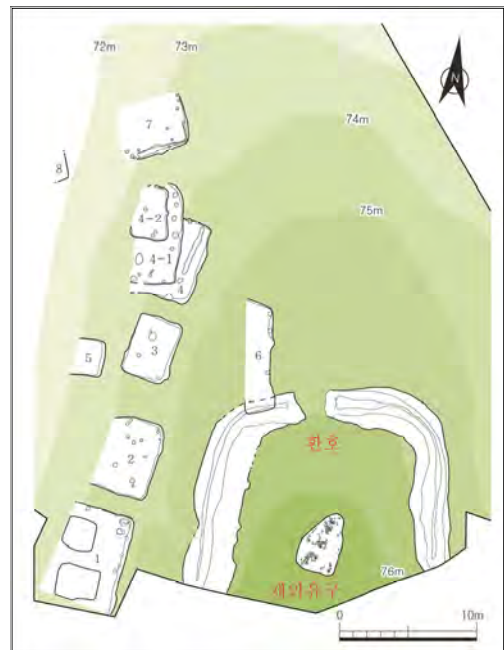


그림 11. 완주 구암리 유구 배치도

유적 전체가 조사되지는 않았지만 환호형 유구는 구릉 정상부를 감싸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환호 내부에서는 대형의 수혈유구가 발견되었는데, 유구 내에서는 불을 오래 맞은 흔적이 있는 소형할석과 불에 그을려 단단하게 굳은 흙덩이가 반복적으로 쌓여 있고, 이중구연단사선문과 구순각목문토기 등이 다량 발견되었다. 따라서 이 수혈유구는 제의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주거지들의 내부에서는 의례행위를 시사하는 적색마연고배, 소형의 발과 완, 小壺, 국자모양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따라서 구암리유적은 여러 마을의 사람들이 모여 지역 내 촌락사회의 제의와 축제를 공동으로 행하였던 장소였다고 여겨지며, 향후 호남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유적이 발견되리라 예상된다.

3. 중기: 사회적 복잡화와 위계화의 발달

우리나라 청동기시대 중기 사회는 인구증가와 본격적인 농경사회로의 진입, 사회적 위계화의 심화로 요약(김승욱 2007; 송만영 1995; 안재호 2000; 안승모 2000; 조현중 2000)될 수 있는데, 호남지역 역시 이러한 사회적 복잡화와 위계화의 발달을 잘 보여준다. 가령,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호남지역에서도 이전 시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적의 분포와 밀도가 증가하게 된다. 전기에 이어 역삼동 혹은 혼암리형문화, 그리고 휴암리형문화가 지속되고 지식묘 또한 더욱 활발하게 축조된다. 여기에 금강중하류에서 발원한 송국리형문화가 호남지역으로 급속하게 확산된다.

호남지역 중기 사회의 변화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취락구조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전기에 비해 개별 주거지들은 문화유형에 상관없이 모두 중소형의 크기를 보이는데, 이는 하나의 대가족이 독립된 가옥에 거주하는 소위 '독립거주형 세대공동체'의 주거방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거군

이 다수 모여 하나의 마을을 구성하게 된다.

중기 사회는 본격적인 농경사회로 발전하게 되고 이는 대규모 잉여생산물의 창출로 이어진다. 호남지역에서도 잉여생산물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이 대규모로 등장하는데 수혈과 고상가옥이 그것이다. 고상가옥의 일부는 망루나 거주용으로 이용되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잉여생산물을 저장하기 위한 전문저장시설로 이해되고 있다(김경택·황지미 2014). 지식묘와 송국리형 묘제를 포함한 이 시기의 분묘는 동일 유적에서 생활유구와 공간을 달리하면서 분포하거나 인근에 위치하게 된다.

이와 같은 취락의 경관과 발전된 사회구조를 보여주는 유적이 다수 발견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전주 동산동유적을 들 수 있다(그림 12). 이 유적은 황방산의 사면쪽으로 취락이 계속 이어졌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취락의 규모가 현재 조사된 것보다 훨씬 컸으리라 추정된다. 현재까지 조사된 지점에서 주거지 69기, 분묘 28기, 수혈 140여기, 굴립주 건물지 10여기, 구상유구 30여기, 기타 적석유구, 의례유구, 원형환구 등이 발견되어 그야말로 초대형 복합취락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 취락은 생활영역과 분묘영역이 공간적으로 구별되고, 전자는 다시 주거와 광장, 저장공간(수혈과 고상가옥)으로 나누어진다. 생활영역의 중앙에 위치한 광장에서는 공공의례와 축제를 거행했음이 확실한데, 이는 생활영역의 중심에 위치한 드넓은 공간과 내부에서 다량의 토기와 잡석을 집중적으로 폐기한 의례용 제사유구의 존재에서 방증된다.



그림 12. 전주 동산동 청동기시대 중기 유구 배치도

이처럼 발달된 사회조직과 복합도를 자랑하는 동산동취락은 주변 소규모 촌락을 사회정치적으로 연결하는 ‘지역 거점취락’으로 기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근거로는 주변에 중소 규모의 촌락만이 위치하는 점, 만경강이라는 수로와 육로의 교차로에 위치하는 점, 대규모 저장시설의 존재 등을 들 수 있다(김승욱 2017). 중앙광장과 내부의 의례유구에서는 주변 촌락에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농경축제와 같은 축제를 즐기고 조상을 기리는 다양한 제의행위를 거행했을 것이다. 한마디로 동산동유적은 지역을 아우르는 핵심취락이라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핵심취락은 호남지역의 다양한

지역에서 발견된다. 고창 죽림리와 여수 적량동의 지석묘사회, 진안 여의곡유적, 장흥 갈두와 신평유적(그림 6, 7), 나주 운곡동유적 등도 지역연계망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거점 취락으로서의 기능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진안 여의곡유적에서는 1) 금강 수계를 포함한 전북 동부에서 가장 압도적인 규모의 지석묘가 발견되었으며, 2) 대규모의 발유적이 확인되었으며, 3) 주거와 매장 영역 사이에 광장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공간과 소위 ‘入大木’과 유사한 일련의 제의행위(이종철 2018)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호남지역에서는 중기에 이르면 지역 핵심 취락과 주변의 중소형 촌락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광역의 지역공동체가 존재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기 사회의 개인과 집단 간의 사회정치적 관계는 어떠했을까? 평등사회였을까, 불평등사회였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단서는 피장자의 지위와 신분을 상대적으로 잘 반영하는 분묘유적을 통해 추적할 수 있다. 중기에 이르면 지역 내 취락과 분묘의 규모에서 집단 간의 차이가 심화되며, 집단 내에서도 개인적 위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금강 상류의 최상위 중심지였던 여의곡유적에서는 분묘의 크기와 형태, 출토유물에서 일부 개별 분묘와 3기 내외의 군집 분묘가 신분이 높았던 자들의 무덤으로 판단된다(그림 9, 13). 이러한 유력 군집묘 내에서는 여의곡 5호처럼 극소형의 분묘도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 이르면 성인뿐만 아니라 신분이 높은 유소아가 함께 매장되는, 소위 유력 친족집단이 있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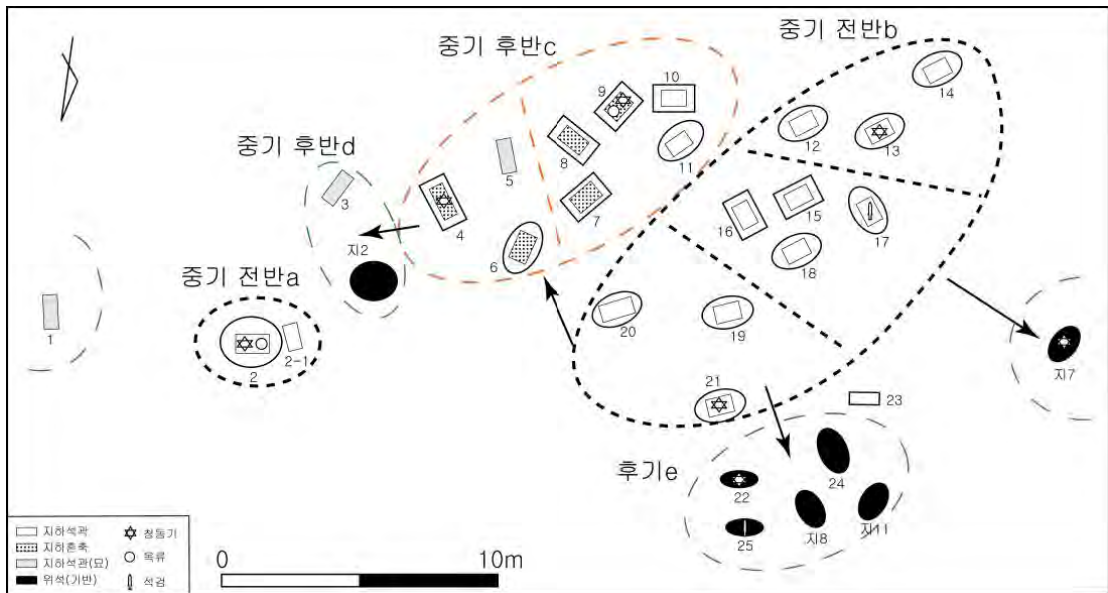


그림 13. 여수 적량동 유구 배치와 변화

전남 일대에서도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았던 자들은 초대형의 석곽에 안치되고 내부에서 비파형동검, 석검, 옥 등 고급 위신제가 부장된다. 이러한 예로 섬진강과 보성강 일대의 적량동, 우산리, 오림동유적 등을 들 수 있다(김승욱 2007). 이 중에서 여수 적량동유적(그림 14)을 살펴보면, 이 유적은

청동기시대 중기부터 후기까지의 사회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 유적에서는 7점의 비파형동검과 1점의 비파형동모가 발견되어 남부 지방에서 청동유물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분묘유적이다. 비파형동검이 발견되는 무덤의 매장주체부는 22호를 제외하고 모두 석곽형이며, 상대적으로 대형의 크기를 보이고 있다. 획기별 각 군집묘에서는 비파형동검이 부장된 무덤이 1기씩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비파형동검이 부장된 무덤은 군집 내에서 사회적으로 우월한 자의 무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적량동 지식묘집단은 인근의 지식묘집단에 비해 우월한 집단으로서, 이러한 우월적 위치는 중기부터 후기까지 지속된다(이동희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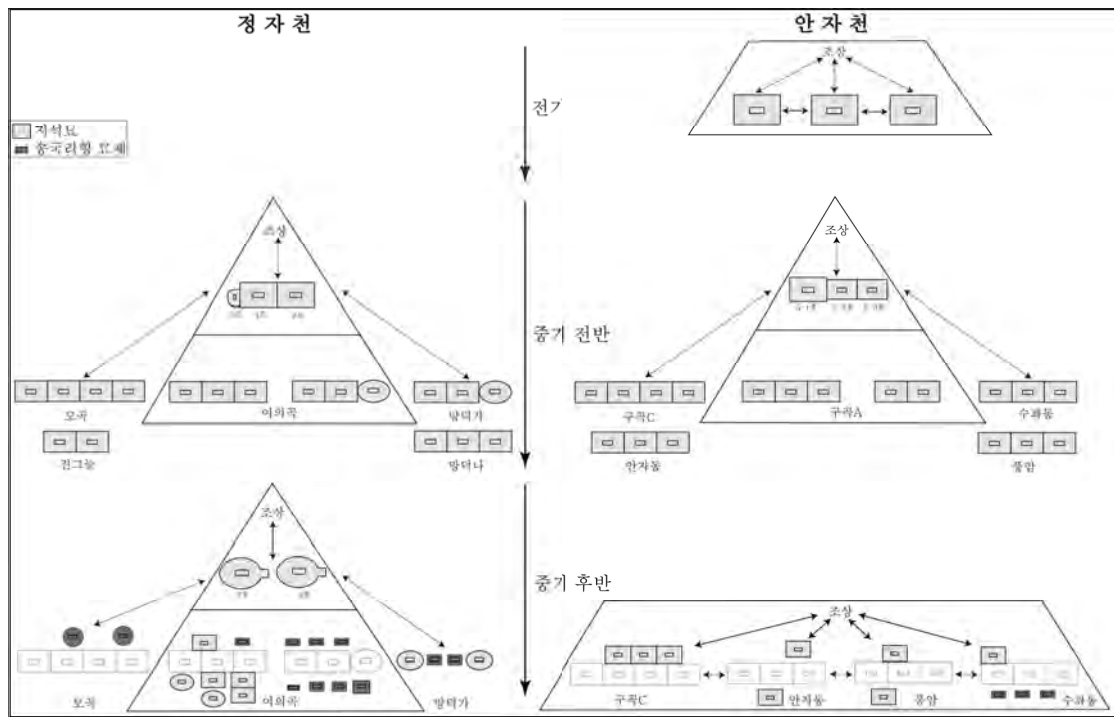


그림 14. 금강 상류 청동기시대 사회의 변천

4. 후기: 사회적 위계화의 절정과 외래문화와의 만남

후기에 이르면 호남지역의 청동기시대 문화는 다시 한 번 급격한 변화를 보여준다. 지역에 따라 제지의 토착문화가 여전히 유행하고, 전남의 남해안 일대에서는 이 시기에도 지식묘의 축조가 여전히 성행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회적 위계화에서도 일련의 변화가 발생하는데, 유력 개인묘의 탄생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여수 적량동 7호 지식묘(그림 14)나 보성 동촌리의 지식묘는 공간적 위치, 유구의 구조와 출토유물로 볼 때 지역 내 최상위 신분을 가진 자의 무덤으로 판단된다. 여수 봉계동 10호나 보성 덕치리의 1호 기반식 지식묘도 비슷한 사회적 위치를 가진 자의 무덤으로 이해된다(김승욱 2007).

이러한 재지 문화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호남지역 후기 사회는 일변을 하게 되는데, 중국 동북지역 점토대토기문화의 유입이 그것이다. 중국 요동지역 이주민은 육로와 해로를 통해 한반도의 북부와 중남부지역으로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호남지역에서는 만경강 일대에서 이러한 점토대토기문화가 먼저 나타나고 이후 영산강과 섬진강 등지로 점차 이동하게 된다.

재지와 외래문화의 공존으로 요약할 수 있는 호남지역의 후기 문화는 여러 측면에서 중기문화와 대비된다. 예를 들어 송국리형문화는 하천의 수계를 따라 구릉상에 주로 분포하는 ‘수계선호형’의 사회로 볼 수 있고, 점토대토기문화는 산의 고지대에 주로 분포한다는 점에서 ‘산지선호형’의 사회로 규정할 수 있다. 또한 점토대토기문화의 사회에서는 장거리 교역을 통한 위신재의 획득이 활발하였고, 이는 거대 공동체와 대형 기념물의 축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규모의 농업공동체를 이룬 송국리형문화와 대비된다. 따라서 재지의 송국리형 사회가 ‘집단 성향의 족장사회(예를 들면 유력 군집묘)’라면 점토대토기문화의 사회는 ‘개인 성향의 족장사회(예를 들면 유력 개인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김승욱 2007). 이러한 송국리형문화와 점토대토기문화의 사회는 생업경제에서도 전자가 수전농경의 비중이 높고 후자는 혼합경제의 비중이 높았을 것이라는 점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점토대토기문화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대규모의 구상유구에서 이루어진 의례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김승욱 2016)

이와 같이 출자와 입지, 사회적 성격에서 차이를 보이는 재지와 외래문화는 상호간에 접촉이 활발해지고 동일유적에서 양자의 문화가 공존하는 사례가 증가하게 된다. 청동기시대 최말기에 이르면 재지와 외래계의 구별이 필요 없을 정도의 문화융합의 사례가 전라도에서 다수 발견된다. 전주 여의동과 효자동, 익산 다송리, 화순 대곡리, 함평 초포리의 유적들은 이러한 문화접촉과 융합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IV. 문화의 특징과 쟁점

이상에서 살펴 본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문화의 특징을 정리하면, 개방성과 독자성, 탁월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청동기시대 중기 이후 호남지역의 재지 문화는 외부의 문화적 자극과 주민의 이주에 매우 개방적이었고, 그 결과 송국리형문화나 점토대토기문화 등 다양한 문화가 꽃을 피우게 된다. 이러한 개방성의 동력으로는 육로와 함께 서해안과 남해안을 통한 해로의 발전, 그리고 대표적인 곡창지대를 끼고 있는 호남의 자연환경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호남지역에서 공존과 통합을 거듭한 청동기시대 문화는 경상도 남강 일대의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송국리형문화는 바다 건너 삼양동유적과 같은 제주도 해양계점취락의 기반이 되고 일본 큐수 일대로 파급되어 야요이문화의 형성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외부 문화에 개방적이었던 호남지역은 동시에 다양한 문화 교통로로서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전라북도는 중부지방과 전남, 영남을 잇는 문화의 길목이자 접이지대로 작용하게 된다.

호남의 청동기시대 문화는 외부문화에 개방적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고유의 독자성도 유지하였다고 여겨진다. 그 대표적인 예로 지식묘를 들 수 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호남지역은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에서도 지식묘가 가장 밀집된 분포를 보이는 곳이다. 지식묘의 시작과 끝을 볼 수 있고, 지식묘사회의 구조와 발전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 아카이브로서의 지역이 호남지역인 셈이다.

이와 같이 고유의 재지 토착문화를 유지하면서 외부 문화의 유입에 개방적이었던 호남의 청동기시대 문화는 공존과 통합을 거듭하여 우수한 청동기시대 문화를 건설하게 된다. 예를 들어 송국리형문화가 유입되어 가장 탁월한 청동기시대 문화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한 지역이 바로 호남지역이다. 또한 북방지역의 점토대토기문화는 만경강을 통해 유입되었고 재지의 문화와 효과적으로 융합하여 우수한 청동기시대 문화로 거듭나게 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호남지역은 마한이 시작되고 가장 마지막까지 강력한 마한 문화가 성행했던 지역이다. 호남의 이러한 마한의 시작과 발달은 그 이전의 우수한 청동기문화와 외래계의 점토대토기문화가 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문화의 쟁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향후 풀어나가야 할 이러한 쟁점은 비단 호남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역에 걸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 글에서 제시하는 것 이외에도 수많은 숙제가 있다⁴⁾. 여기서는 3가지 정도의 쟁점만을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편년과 획기의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문화를 조기-전기-중기-후기의 4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각 획기의 시작과 끝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송국리형문화 단계를 청동기시대 후기로 보는 일각의 견해가 아닐까싶다. 이러한 주장은 기원전 2세기경에 시작되는 초기철기시대 이전의 청동기시대 문화, 즉 원형점토대토기문화와 병행하는 청동기시대 말기의 문화를 배제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후자의 청동기시대 말기 문화는 가장 발전된 청동기문화를 보여주고, 호남을 포함한 남해안 일대에서는 사회적 복잡화란 측면에서 중기의 송국리형문화에 비해 더욱 발전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둘째, 송국리형묘제의 타당성 문제이다. 송국리형묘제가 제안(김승욱 2001)된 이후 일각에서는 이 묘제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부정하거나 수정된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이명훈 2015). 이러한 비판의 논거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 송국리형묘제와 지식묘가 공존하는 현상을 그 핵심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호남지역에서도 진안 여의곡, 임실 외량², 장흥 신평과 갈두유적에서 송국리형문화의 취락이나 묘제가 지식묘와 함께 발견된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문화는 끊임없이 접촉하고 그 과정에서 공존하거나 융합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송국리형문화와 지식묘 집단의 문화가 그러하고 점토대토기문화와 송국리형문화도 마찬가지로 길을 걷게 된다. 또한 여의곡·외량²·갈두와 신평유적은 각각 금강상류·섬진강상류·남해안에 위치하는데, 이러한 지점은 송국리형문화와 지식묘문화가 만나는 길목이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식묘사회의 문화체계에 대한 문제이다. 오늘날 고고학계는 물론이고 일반 대중에게도 지식묘는 ‘농경사회의 기념물’로 각인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식

4) 예를 들어 신석기와 청동기시대 전환기의 고고학, 전기 다양한 문화유형의 유입과 상대적 선후관계, 송국리형 문화의 기원, 송국리식 방형과 원형주거지의 출자 및 선후관계, 점토대토기문화 단계의 문화체계 등 다양한 이슈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묘사회는 정착생활과 수전농경을 통해 잉여생산물을 창출한 농경사회였을까? 현재까지 조사된 자료를 통해 볼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정하기 힘들지만 상당히 회의적이다. 호남의 경우 동부든 서부든 지석묘는 대부분 산악지대나 산지성 구릉이 발전한 곳에서 유행하는데, 이러한 지역에서 아직까지 수전농경의 증거는 발견된 바 없다. 또한 수만여기의 지석묘가 축조됐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정착생활의 전제가 되는 주거지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한정된 지역에서 송국리형주거지가 공반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지석묘와 공반되는 일부 송국리형주거지는 지석묘 사회 후반부 양 문화 간의 접촉이나 융합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재로선 지석묘 사회를 발농사나 화전농경, 수렵채집, 어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혼합경제체제를 영위했던 ‘이동성 농경사회’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된다⁵⁾. 물론 향후 주거지와 분묘의 절대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그러나 한국 고고학에서 ‘있음(有)’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없음’의 현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송기호 2018)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잔존 물질문화에 의존하는 고고학에서 벗어나 ‘비물질문화 고고학’에 관한 다양한 자료 발굴과 방법론이 개발되길 기대한다.

5) 익히 아는 바와 같이 점토대토기문화 취락과 분묘의 불균형 역시 향후 풀어야할 숙제이다. 그런데 점토대토기문화 역시 산지선호형의 사회로서 수전농경보다는 혼합경제체제를 영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석묘 사회와 일면 유사성을 보여 주목된다.

■ 참고문헌 ■

- 김경택·황지미, 2014, 「청동기시대 굴립주건물지의 기능 분석」, 『百濟文化』 51; 5-30.
- 김승옥, 2001, 「錦江流域 松菊里型 墓制의 研究-석관묘·석개토광묘·옹관묘를 중심으로-」, 『韓國考古學報』 45; 45-74.
- , 2003, 「금강 상류 무문토기시대 무덤의 형식과 변천」, 『韓國考古學報』 49; 5-45.
- , 2004, 「전북지역 고인돌과 보존현황」, 『세계 거석문화와 고인돌』, 동북아지석묘연구소 학술총서 1, pp. 173-184.
- , 2006a,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편년과 사회변천」, 『韓國考古學報』 60; 4-37.
- , 2006b, 「송국리문화의 지역권설정과 확산과정」, 『호남고고학보』 24; 33-64.
- , 2007, 「분묘자료를 통해 본 청동기시대 사회조직과 변천」, 『계층사회와 지배자의 출현』, 사회평론. pp. 39-82.
- , 2015a, 「편년과 지역적 이해」, 『한국청동기문화개론』, 진인진, pp. 42-65.
- , 2015b, 「묘제의 특징과 변천」, 『한국청동기문화개론』, 진인진, pp. 86-108.
- , 2016, 「만경강유역 점토대토기문화의 전개과정과 특징」, 『韓國考古學報』 99; 40-77.
- , 2017, 「만경강 일대 선사문화의 전개와 성격-전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호남고고학보』 55; 32-59.
- , 2020, 「만경강의 물질문화와 마한의 성립」, 『전북지역 馬韓문화』, pp. 372-393,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학술총서1.
- 배진성, 2011, 「墳墓 築造 社會의 開始」, 『韓國考古學報』 80; 5-28.
- 송만영, 1995, 『中期 無文土器時代 文化의 編年과 性格』, 崇實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請求 論文.
- 손준호, 2009, 「湖西地域 靑銅器時代 墓制의 性格」, 『先史와 古代』 31; 137-160.
- 송기호, 2018, 「문헌사와 고고학의 만남을 위하여」, 『韓國上古史學報』 100; 9-15.
- 송종열, 2015, 「만경강유역 점토대토기문화의 정착 과정」, 『湖南考古學報』 50; 52-69.
- 안승모, 2000, 「稻作의 出現과 擴散」, 『韓國 古代의 稻作文化』, 국립중앙박물관 학술심포지움 발표요지, pp. 1-20.
- , 2011, 「신석기문화의 성립과 전개」, 『한국 신석기문화 개론』, 서경문화사, pp. 63-97.
- 안재호, 2000, 「韓國 農耕社會의 成立」, 『韓國考古學報』 43; 41-66.
- 오강원, 2017,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의 경형동기 연구」, 『한국청동기학보』 20; 56-87.
- 이동희, 2002, 「全南地方 支石墓 社會와 發展段階-전남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湖南考古學報』 15; 19-55.
- , 2017, 「분묘의 분포·입지·군집」,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4 분묘와 의례』, 서경문화사, pp. 70-91.
- 이명훈, 2015, 「松菊里型 墓制의 檢討」, 『韓國考古學報』 97; 28-67.
- 이영문, 2003, 『한국 지석묘사회 연구』, 주류성.
- 이종철, 2014, 「제4장 호남·제주지역」,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3 聚落』, 서경문화사, pp. 168-194.
- , 2015, 『松菊里文化의 聚落體制와 發展』, 전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 2018, 「立大木·숫대 祭儀의 등장과 전개에 대한 試論」, 『韓國考古學報』 106; 8-45.

- 정다운, 2015,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전기문화의 시공간적 전개양상』, 전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조현중, 2000, 『稻作農耕의 起源과 展開』, 『韓國古代文化의 變遷과 交涉』, 서경문화사. pp. 3-30.
- 천선행, 2015, 『청동기시대 초기 설정 재고』, 『湖南考古學報』 51; 4-31.
- 한수영, 2015, 『全北地域 初期鐵器時代 墳墓 研究』, 전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허의행·강병권, 2004, 『天安 云田里遺蹟』, (財)忠淸埋葬文化財研究院 文化遺蹟 調査報告 第3 冊.
- 홍밤음, 2013, 『전남지역 청동기시대 조-전기문화의 변천과정』, 『한국 청동기시대 편년』, 서경문화사, pp. 327-353.